

김기남
김초롱
김희진
이민행



라온아띠 라오스팀

I'm fine **thank you!** And you?

목차

01 / 드디어 첫 여행을?!
스터디 투어

02 / 깊은 산골 마을
나케

03 / 따뜻한 마을
나몬느아

04 / 유일한 도시 근처
푸딘댕

05 / 행복한 마을
위앙싸마이





이 / 드디어 첫 여행을?!

스터디 투어

이 / 드디어 첫 여행을?!
이

스터디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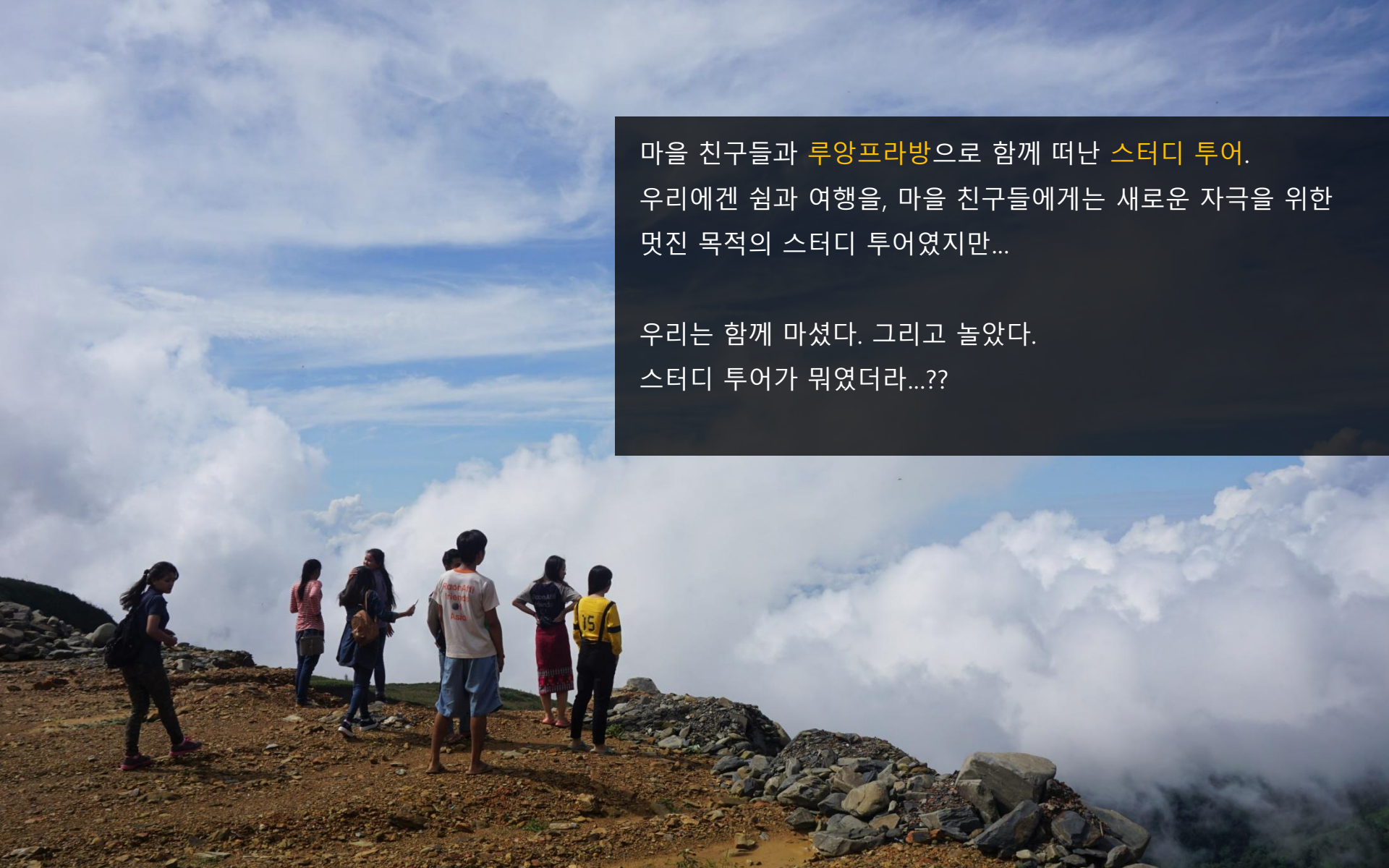
김기남

김초롱

김희진

이민행

루앙프라방에서 바라본 석양. 2016



마을 친구들과 루앙프라방으로 함께 떠난 스터디 투어.
우리에게는 쉼과 여행을, 마을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자극을 위한
멋진 목적의 스터디 투어였지만...

우리는 함께 마셨다. 그리고 놀았다.
스터디 투어가 뭐였더라...??

In 루앙 프라방

스터디 투어



현지 친구들도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광시폭포**.
시몬과 께오는 이 곳에서 사진을 1839장 찍었다.



루앙 프라방의 밤은 이 곳으로 통한다.
몽족 야시장에서 밥도 먹고 쇼핑도 했다
가이드는 현지인 **뽀자이(초롱) 선생님**

In 루앙 프라방

스터디 투어



새벽아침 일찍 이루어지는 소리 없는 경이로운 광경.
가진 것을 베풀고 받은 것을 다시 나누어주는 **탁발**.



푸시산에 올라 내려다 보는 루앙프라방의 모습은
마치 라오스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라 같았다.



02 / 깊은 산골 마을

나케

김희진

02 / 깊은 산골 마을

나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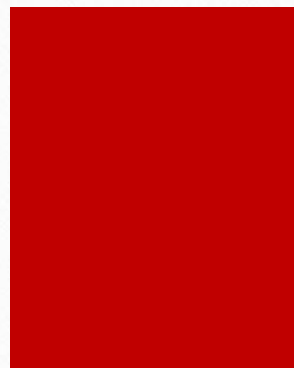


영어 실력이 쑥쑥

학생들이 더 잘하는 영문법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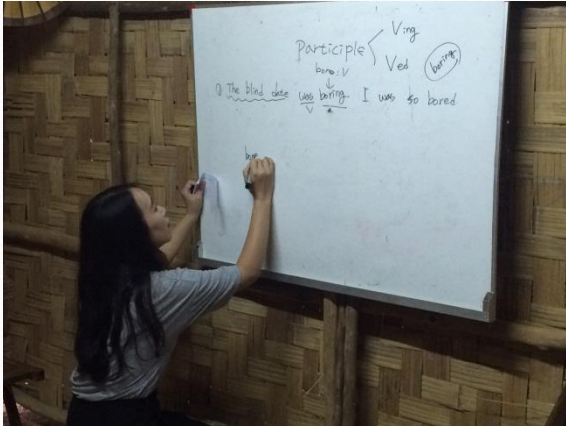


주어-동사 찾기부터 시작했던 영문법 수업이 어느새 분사와 과거 완료형까지 통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세상에 이렇게 뿌듯할 수가...** 학생 별로 영어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동사 변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먼저 이해한 친구들이 **라오어(혹은 몽어)로 설명**을 해줘서 문제 없이 수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영어 실력이 쑥쑥

학생들이 더 잘하는 영문법 수업



가끔 학생들이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 내 자리가 위태롭다

며칠 전 학생들에게 "오늘은 센터에 다른 재미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영어 문법 수업에 와도 되고,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돼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당연히 대부분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줄 알고 그 날은 소수 정예로 문법 수업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무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학생 모두(!)가 영어 문법 수업을 들으러 왔다. 세상에 그 때의 감동이란! 남은 기간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겠습니다. (T_T)

한국어로 자기 소개 썸이야!

안녕하세요! 내일 만나요! 한국어 수업

아이들과 세 달 썸 한국어 단어 수업을 하니 이제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해서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됐다. 결론은 '-요' 말투로 **형용사나 동사를 가르치기로!** 아이들의 한국어 발음이 부쩍 좋아져서 수업하는 즐거움이 있다.



한국어로 자기 소개 쫘이야!

안녕하세요! 내일 만나요! 한국어 수업



뒷자리 학생에게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뒷자리라고 판짚할 수는 없다!

뒷자리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한국어 수업! 귀를 쫑긋하고 한국어 발음을 듣는 학생들 :) 요즘 한국어 수업 앞에 미술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미술 수업해주시는 규리 쌤 멋있어요! 대단해요!) 덩달아 한국어 수업 참여 학생도 늘어났다. 한국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는 걸 새삼 느낀다...

개인 과외가 스테디로!

원어민들의 한국어-몽어 교환 스테디



지난 달까지 내가 몽족 친구들에게 몽어 개인 교습을 받던 게 어쩐지 소문이 났다. 그 결과, 무려 9명의 사람들이 매일 저녁 8시에 한국어-몽어 교환 스테디에 참여하게 됐다! 라오스에서 저녁 10시면 모두가 잠든 시간인데도, 우리의 언어 교환 스테디는 매일 평균 10시 반에 끝이 난다. 한 번은 12시까지 한 적도 있다. (!) 언어를 향한 한국어 원어민들과 몽어 원어민들의 이 열정... 어제는 공부 중에 전기가 나가서 손전등을 켜고 공부를 이어나갔다. 스테디원 한 명은 손전등에 달려드는 벌레들 때문에 벌레를 삼켰는데도 묵묵하게 공부를 이어나갔다. 아 이 열정들... 멋진 사람들... 다음 달에 한국에 가면 몽어가 얼마나 귀여운 언어인지를 동네방네 알리고 싶다! 요우정(안녕)!

요즘 우기라 강이 불어서 물놀이를 하기 참 좋다. 다음 주에도 스테디원들과 같이 물놀이를 가기로 했다 ㅎㅎ

이 귀여운 이가들도 스테디를 구경하러 온대 >.<
옆에서 한국어를 조금씩 따라하는데 무척 귀엽다



어느새 6월이 지나갔다. 이제 마지막 달인 7월만을 남기고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별이다. 친구에게 '한국에 가더라도 다시 라오스에 올 거지?'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언제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시 올 거야!'라고 답했다. 한국이 엄청 그림고 가족과 친구들이 그림고 특히 치즈 없은 닭갈비가 엄청나게 그리운 요즘인데, 한 편으로는 라오스 돼지고기 육포가 그림고 빗소리가 그림고 같이 공부를 하는 라오스 친구들이 그림다. 한국에서는 본 적 없던 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도 그림다. 별 보며 양치하던 중에 만난 반딧불이들도.

며칠 전 동네 가게에 갔을 때 주인아주머니가 '몽어가 많이 늘었네! 2년 뒤엔 엄청 잘하게 될 거야'라고 하셨다. 2년 뒤라니! 내가 '저 8월에 한국으로 가요'라고 답하자 아주머니는 '네가 가면 엄청 슬플 거야'라고 안타까워하셨다. 나도 우는 표정을 지으며 '저도 엄청 슬플 거예요'라고 답했다. '네가 가면 슬플 거야.' 요즘 이 말을 듣는 일이 잦다.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정말 활동이 끝나간다는 게 실감이 나고 복잡한 감정들이 든다. 예컨대 한국에서 닭갈비를 먹고 싶은 맘과 라오스에서 돼지고기 육포를 먹고 싶은 마음이 마구 뒤섞인다.



벌써 끝이 다가오니 그동안의 활동들도 머릿속으로 차르르 지나간다. 처음 옷 입고 샤워를 하면서 '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옷 입고 어떻게 씻는 거지?!'라고 당황했던 기억, 큰 돈 단위 때문에 물가 계산이 잘 되지 않아 물건을 살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시절, 내가 물갈이를 심하게 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자 김치를 구해다준 홈스테이 가족들, 라오어를 못해서 인사와 내 이름만 간신히 말할 수 있었던 때, 그래도 나와 놀아준 사람들, 처음 로띠(라오스식 바나나 팬케이크)를 먹던 순간, 라오스의 명물 라오비어와 라오하이를 마시고 감탄할 때마다 웃던 친구들, 라오스에서도 인기인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며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 언어 교환 스테디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발견한 별풍별과 은하수, 낮가림이 심했던 홈스테이 가족 아기가 어느새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이름을 부르며 장난을 걸었던 때, 정말 많았던 추억의 순간들.

지금 에세이를 쓰는 이 순간에도 우기인 라오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에 가면 이 빗소리를 언제쯤 다시 들을 수 있게 될까? 요즘은 한국이 그림고 라오스가 그림다.

한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 받고 가야겠다. 모두들 곧 한국에서 만납시다 :-)





03 / 따뜻한 마을

나 몬 느 아

김초롱

03 / 따뜻한 마을

나몬느아



나몬느아 일보

뽀자이 기자
seguitestessa803@gmail.com



몽과 중국인의 결혼

나몬느아 대표 미녀 '미'

페이스북으로 만난 중국인 의사와 결혼

우리마을 예쁘기로 소문난 '미'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중국인 의사와 결혼해서 화제이다. 결혼식 후 중국

으로 떠나는 그녀 때문에 결혼식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했다. 중국어를 모르는 '미'와 몽어를 모르는 남편, 의사소통 가능한 공통된 언어가 없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결혼식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린 '미'
비엔티엔 남자친구는 그 충격에 6kg 빠져

결혼식이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 도중 '미'는 결혼하기 싫다며 울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였을까. 알고 보니 그녀에게는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한다. 비엔티엔에서 공부하고 있는 남자친구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혼소식에 며칠동안 밥도 못먹고 술과 눈물로 밤을 지새어 무려 6kg가 빠졌다고 한다. 그런 남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한 나머지 그녀는 결혼식 후 밤에 그에게 울며 전화하여 미안함을 전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 명장면을 놓치지 않고 비디오 촬영을 했고, 이 사건을 안주 삼아 술판을 벌였다.

나몬느아 일보

뽕자이 기자
seguitestessa803@gmail.com

13세 신부와 14세 신랑

나몬느아 ‘어린신부’ 탄생
집안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반도주’ 를 하는 대범함을 보여

씨송 여동생이 13세에 ‘어린신부’ 가되어 화제이다. 양가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잠든 사이 남자친구와 몰래 옆 동네인 그의 집으로 ‘야반도주’ 하여 결혼식을 치르고 나몬느아로 돌아왔다. 나몬느아에서 또 두번째 결혼잔치를 벌였는데 남편 또한 14세 밖에 되지 않아 결혼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참고: ‘몽족’ 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쪽과 여자 쪽 마을에서 각각 잔치를 벌인다.

기분이 어떻냐는 물음에 “나는 행복하다.”

어린신부의 마음이 궁금하여 기분이 어떻냐고 직접 물어 보았더니 “나는 행복하다.” 며 수줍은 미소를 보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나이에 그저 기뻐하는 모습에 가족 그리고 마을사람들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사랑꾼인지 아님 단순히 철이 없는 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어린 신랑신부 결혼식에 신난 늙은이들

센터 컴퓨터를 지켜라!!



→ 도둑놈들아
오기만 와봐라!!

우리마을 센터(일명 흥간)에는 컴퓨터 8대가 있다. 하지만 군인들이 근무지를 흥간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면서 우리의 컴퓨터들이 위험해졌다!! 그리하여 순번을 정해 우리가 보초를 서기로 결정!!

보초서기 3단계

깨알같이 보이는 까오



1단계

각자 이불과 베개를 준비한다!



2단계

문은 2중으로 안전하게 잠근다!!!



3단계

남녀칠세부동석! 책상을 기준으로
반반 나눠서 취침 준비!

보초서는 우리들의 모습 😊



보초를 서면서 같이 영화를 보기도하고
친구들이 잠깐 놀러왔다 가기도 하고
막간을 이용하여 영어, 한국어 공부를 하기도 했다.

우리마을 인기 놀이
'오단'을 소개합니다!



놀이 룰

1. 선을 따라 대각선으로 한칸씩 말을 움직일 수 있다.
2. 상대방의 말을 뛰어 넘으면 상대방의 말을 먹을 수 있다.
3. 말이 상대편 진영 맨 끝에 도착하면 말을 하나 더 얹은 다음 한칸씩이 아닌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 있게 된다.
4. 상대방 말을 다 먹으면 승리.

※주의※

먹을 수 있는 말을 모르고 안먹으면 상대편에게 역으로 자신의 말이 먹힌다.

놀이판 제작: 우리집 4째 남동생 '통'

오단 말 출처: 씨송 여동생 결혼식 후 버려진 비어라오와 미린다 뚜껑.

'오단'을 소개합니다

우리집 어두운 조명속에서도 경기는 계속 된다.



우리마을 오단 9단 '카이' (우리집 사촌 동생)



놀이판을 만든 이후로 마을 꼬맹이들 부터 친구들까지 다 모여서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집에서는 오단 경기가 벌어졌다.

'제야'에서 펜을 잡고2

나몬느아에 농번기와 우기가 찾아왔다.

이번엔 가족들과 농장에서 함께 흘린 땀을 펜에 흘려 보낸다.

#비의 작은 위로

농번기에 찾아온 비가 주는건
쏟여가는 흙 물은 빨랫감과
마르지 않는 옷들 뿐인줄 알았더니

농번기에 찾아온 비가 주는건
내 몸에 흐르는 것들이
땀인지 비인지 모르게 해주기 위한
비의 작은 위로 였더라



우리집 동생의 나이

새벽부터 비가 퍼붓지만
어깨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빗물에 씻겨 내기 위해
오늘도 경운기를 잡는다

어깨에 짊어진 무게로
경운기의 무게를 근근히 버티지만
뼈속까지 느껴지는 통증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는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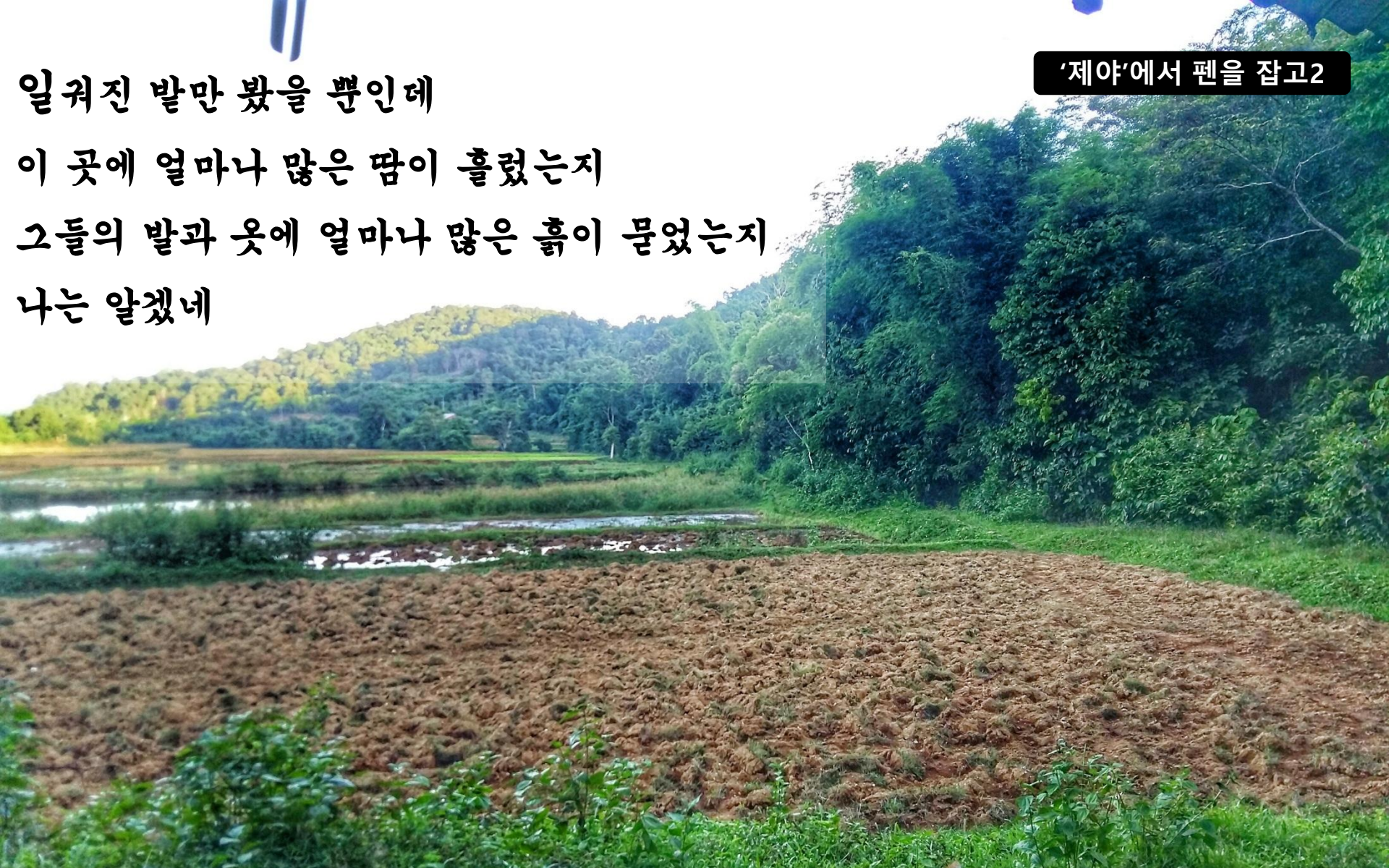
두달째 보지 못한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엄마 목소리에 금새 눈물을 터뜨리는

장남이자 가장이 되기에는 이른나이
아직은 어리광 부리고 싶은 그런 나이
열여덟

'제야'에서 펜을 잡고2



일궈진 밭만 봤을 뿐인데
이 곳에 얼마나 많은 땀이 흘렀는지
그들의 밭과 옷에 얼마나 많은 흙이 묻었는지
나는 알겠네



“자이, 뭉 아치?(어디가?)”

나몬느아에 산지 3달 쯤 지났을 때 부터인가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하나 둘씩 나를 ‘뽀자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더 짧으면서도 부르기 쉽고 편한, 정감가는 이름.

‘꽃’이라는 의미의 ‘뽀’와 내 이름 ‘초롱’과 비슷한 의미인 ‘자이’가 합쳐져 지어진 특별한 이름이지만, 어찌 보면 ‘자이’가 진짜 내 이름인 셈. 꽃이라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떼어내고 진짜 내 이름으로 불리는 뒤로는 모든게 다 더욱 자연스럽다. 옛 동네친구, 진짜 가족들이 느껴진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허물을 벗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떼어내자. 가까워 지려면 상대방의 거추장스러움을 떼어주자. 모든것이 자연스러워질 때 그 곳에 스며든다. 꽃 향기보다 향기로운 사람냄새가 내게 스며든다.

이 냄새 그대로 머물길.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말할 수 있게. 내가 나몬느아에 다시 돌아와서도 말할 수 있게. 그대로...

“공부 하고 싶다. 대학 가고 싶다. 돈이 없다. 평생 농사를 지어야 한다. 너무 힘들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 나는 멍청하다. 죽고싶다. 다시 태어나고싶다. 슬프다. 니가 부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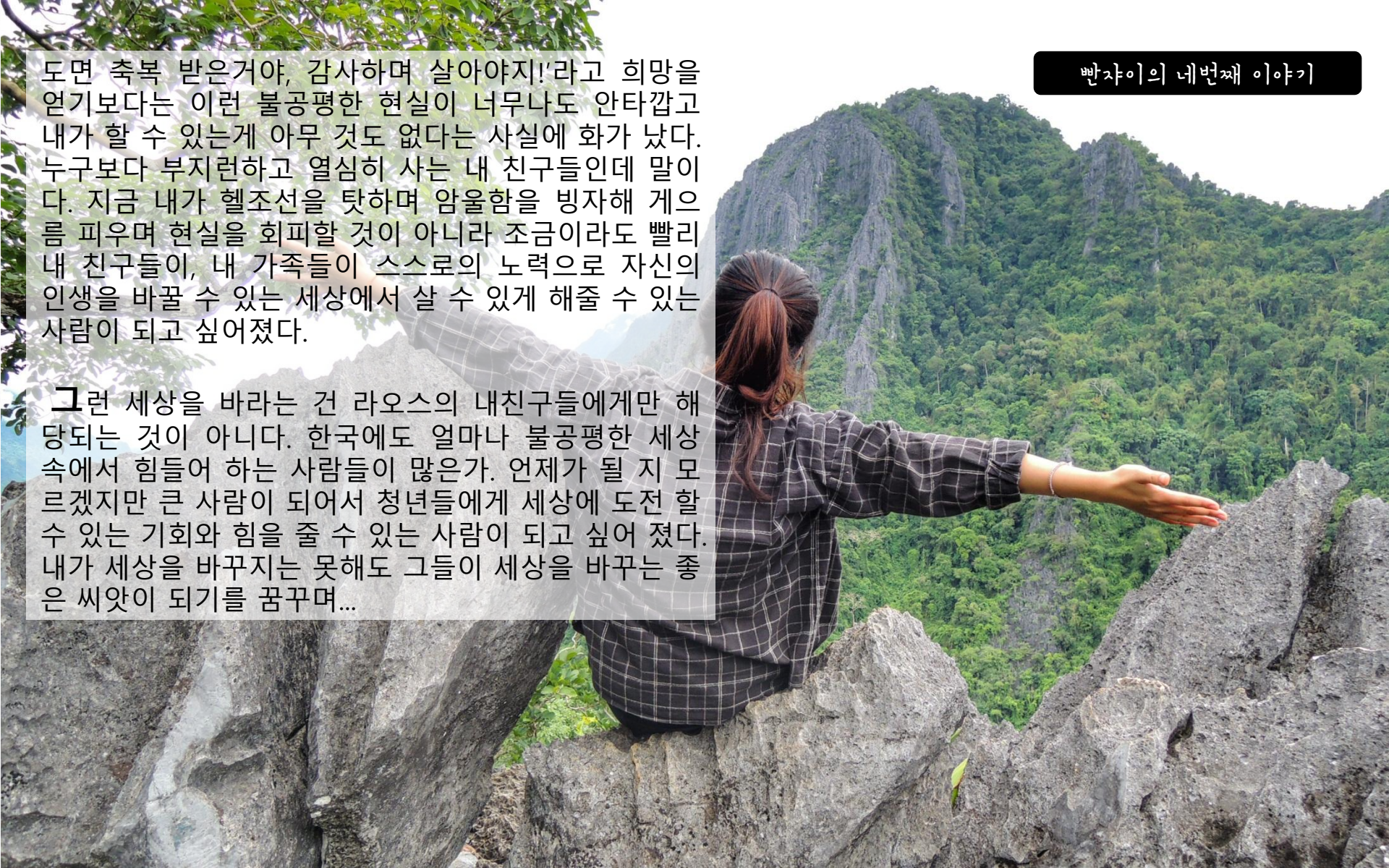
동네 친구들이나 내 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한탄에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 지 몰라 말문이 막힐 때가 많다. 특히 나를 부러워하고 나처럼 되고 싶다는 말에는 더욱.

당장에 나의 친한 친구 ‘꾸’는 참 똑똑하고 성실하며 영어도 잘한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매일 농장을 간다. 그리고 예상 외로 가정형편 때문에 secondary school(중고등학교)마저도 끝마치지 못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다. 많은 친구들이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한다고 슬퍼하는 모습에 나는 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들이 부러워 하고 있는 내가 무턱되고 “좋은 날이 올거야. 힘내!”라는 말을 해준다고 그것이 희망인지 개똥인지, 그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나는 알 수가 없기에.

단지 내가 한국에서 지금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나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들은 라오스에서 그리고 몽족으로 태어나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살아야 하다니. 함께 살다 보니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이정

도면 축복 받은거야, 감사하며 살아야지!'라고 희망을 얻기보다는 이런 불공평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내가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내 친구들인데 말이다. 지금 내가 헬조선을 타하며 암울함을 빙자해 게으름 피우며 현실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빨리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그런 세상을 바라는 건 라오스의 내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도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언젠가 될 지 모르겠지만 큰 사람이 되어서 청년들에게 세상에 도전 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내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좋은 씨앗이 되기를 꿈꾸며...





04 / 유일한 도시 근처

푸딩당

04 / 유일한 도시 근처

이민행

푸틴댕





고추 따러 가는 민행&기남 2016-06-11

우리는 한 이웃
품앗이 현장

다른 마을에 살지만 우리는 한 이웃

라운아띠라는 이름을 빼도
우리는 이 곳에서 한 식구다.

우리는 한 이웃

품앗이 현장



농장에 벼를 심을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심는다.
그리고 뒤따르는 점심 **고기파티**...(때문에 힘들어도 참는다ㅎ)

라오스의 흔한 현지인들.jpg

현지인 인터뷰

Interview



이민행 기자:

안녕하세요? 돌아온 인터뷰 시간의 이민행 기자입니다.

오늘은 캠프(24)의 부탁으로 그의 특별한 친구 한 분을 인터뷰 해 봤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정말 특별한 캠프의 친구. 한 없이 순수하고 맑은 소녀 끼양을 인터뷰 해 봤습니다.

현지인 인터뷰

Interview



이민행 기자



운동하는 캠프트(24)
/ 마을 백수, 선생

이민행 기자: 안녕하세요? 캠프트씨.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캠프트 : 네 안녕하세요. 이민행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특별한 일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빠졌던 살도 다시 채우고 피부는 이제 더 이상
까매질 곳도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번 달에는 저 말고 제 친구를 인터뷰
해 주셨으면 해요.

이민행 기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보고서들에서 자주 등장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소개해 드린 적 없는 라오스 친구
끼앙을 인터뷰 해 보겠습니다.

현지인 인터뷰

Interview



이민행 기자



끼앙(18)
/ 마을 대장, 소녀

이민행 기자: 안녕하세요? 끼앙씨.
먼저 자기 소개를 해 주세요.^^

(가독성을 위해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끼앙 : 싸바이다~(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끼.앙.이.에.요.
저는 18살 이고요,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이민행 기자: 캄펫과 약 3개월을 함께 지냈다고 들었어요.
그 동안 어떠셨나요?

끼앙 : 행복했어요. 함께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매일 같이 생활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캄펫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저에게
큰 행운이었어요.

현지인 인터뷰

Interview



-함께 운동하는 캄펏과 끼앙. 2016-05-19

이민행: 구체적으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끼앙: 음... 아! 처음에 함께 땀꺼삐약 먹으러 갔던 날이 기억에 남아요. 캄펏이 너무 매워 했던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저만큼 매운 음식을 잘 먹지만요. 그리고 함께 루앙프라방 여행 간 것도 기억이 나요. 저는 차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매일 보던 캄펏과 여행도 같이 한다는 것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도 가르쳐 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한국 노래 2곡을 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모든 순간이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이민행: 그럼 이제 솔직해 질 시간! 서운했던 순간은 있나요?

끼앙: 서운했던 순간! 슬펐던 순간! 화가 났던 순간! ㅎㅎㅎ 없었어요~ 재미있는 질문인데 없어요.

캄펏: 고마워 끼앙아 ㅎㅎㅎ

이민행 기자 : 네... 사이 좋아 보이는 두 분. 그럼 캄펏이 라오스에서 생활하면서 잘했던 점,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 해 주세요.

끼앙 : 먼저 좋았던 점은 매일 농장에 갔던 것이에요. 자주 농장에 가서 고추도 따고 일도 돕고. 아마 캄펏 부모님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매일 농장에 가는 저에게도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아, 그리고 매운 고추 잘 먹는 거! 라오스에 적응하기 정말 편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알 정도예요.

단점은...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 아, 오토바이 운전을 못해서 어디 갈 때 저를 귀찮게 했던건 빼고요 ㅎㅎㅎ

현지인 인터뷰

Interview

이민행기자 : 정말 캠프트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질문 하나 해 볼게요.
끼앙씨의 꿈은 무엇인가요?

끼앙 : 제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캠프트 : 예상 외의 답변인데? 그 이유가 있어?

끼앙 :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저 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평생 농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기회를 주고 싶어요. 우리 라오스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갈 수 있게, 돈이 적어도 배우고 싶다면 배울 수 있게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은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아직 학교가 없는 마을도 많기 때문에 학교를 지어주고 싶어요. 아직은 꿈이죠 ㅎㅎ

캠프트 : 그 마음이 마을살이 하면서 다 보이더라고요. 한창 친구들과 놀고 싶은 나이 18인데 항상 마을 아이들과 함께예요. 마을 센터 수업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모아 영어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순수한 마음 다 느껴져요.

강아지도 함께 듣는 수업. 2016-06-07



현지인 인터뷰

Interview



-웃는 모습이 매력인 두 친구. 2016-05-13

이민행 기자: 멋진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응원할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끼앙: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해서 한국에 갈 거예요. 그리고 한국 김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할 거예요.

이런 인터뷰 기회를 준 캄펏에게 고맙고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함께 지내서, 친구라서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 정말^^

캄펏 : 제가 항상 더 배운 점이 많았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마냥 어리지만은 않은 끼앙. 제가 라온아띠를 하면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나도 우리가 친구라는게 정말 행복해.

이민행 기자: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루앙프라방에서 캄펏과 끼앙. 2016-06-28



현지인 인터뷰

Interview



이민행 기자:

장난기 많고 마냥 발랄하기만 한 줄 알았던 18세 소녀 끼앙. 오늘 인터뷰를 통해 왜 캄펏에게 특별한 친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멋진 꿈과 순수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끼앙을 저도 한국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곳 라오스는 언제나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가득할 겁니다.

그 즐거운 일을 경험할, 동시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이 곳 라오스 특파원은 바로 당신이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민행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민행 특파원/NaegaKhamphet@sokatji.com



렉(15) / 사진작가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다!

Part. II

끼앙, 라삿, 렉의 눈으로 본 세상

내가 찍은 3847장의 어떤 사진보다 예쁘고 아름다운 사진들.

단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훗날 그들이 다시 사진기를 마주 할 때,
오늘의 예뻐던 추억들이 생각나길.

※무단 복제, 배포에 대해서는 절대 허 합니다.※
친구들이 좋아할거예요.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다!
Part. II



Photo by
라숫(13) / 사진쟁이

이 날 마을 센터에 단지
색종이를 두었을 뿐인데
어느새 우리 마을에
나비가 날아 들어왔다

렉의 눈으로 본 센터. 2016-06-14
이 친구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았다.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제 진짜 타오스타!
Part. II

ຊ່ວຍກັນຮັກສາຄວາມສະອາດ
ເພື່ອບ້ານຂອງພວກເຮົາແລະສະໜັບສະໜູນແວດລ້ອມທີ່ດີກ່ວາ
Let's keep cleaning for our community and better environment.
%ດັງໂຕຍ: ສູນ ຊ່ວຍເຫຼືອ ຊຸມຊົນແຫ່ງ
ສະຫະລັດອາເມລິກາ ໂຕຍ: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다!

Part. II

끼앙의 눈으로 본 푸딘댕. 2016-06-08

이 친구의 눈에는 모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보다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다!

Part. II



Photo by

끼앙(18) / 사진작가

한국의 18살과는 달리
생각도 다르게 하고
성숙하기도 한 끼앙.
나에게 많은 생각을 들게
한 끼앙은 이런 꽃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아직은 마음에 순수한 꽃
한 송이를 품고 사는
예쁜 소녀인가보다.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타! Part. II

Epilogue

사실, 처음에는 카메라를 어디 두고 가는 것이 두려웠다. 카메라에게 많은 위험이 닥칠까 항상 내 손에 있어야 안심했다. 하지만 역시 걱정뿐이었다. 내 손을 떠난 카메라는 더 멋진 세상을 보고, 더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내 손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의 사진 찍는 솜씨에 감탄했다. 사실 솜씨도 아니다. 단지 그들의 눈으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봤을 뿐이고 단지 셔터를 눌렀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탄생한 사진에는 이야기가 담겨있었고 그들의 진심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 나는 내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 곳 라오스를 더욱 순수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다. 내 친구들이 훗날 어떤 상황에서건 카메라를 잡게 되거나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예뻐던, 즐거웠던 추억을 잠시나마 떠올려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나 역시 행복했던 추억을 1328컷 안고 간다.

현지 주민이 직접 찍은

이게 진짜 라오스다!

-번외편(민행)



내게 정말 의미 있는 사진들이다.

너무 수줍어서 3초 이상 렌즈를 보지 못했던 작은 친구들이
이제는 이렇게 웃어준다.

카메라를 보면 까-악 도망만 가던 친구들이
이제는 이렇게나 가까이서 렌즈를 바라본다.

렌즈와 아이들 사이의 거리보다
카메라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시선이,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져 있음을 느낀 이 날.

더 이상 이런 사진 따위는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난 더 이상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그저 친구들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민행의 '이게 진짜 라오스다' 끝-

푸틴댕 아이들의 미소. 2016



하얀색 형, 누나, 오빠, 언니

학생 봉사자들

한국에서 온 7명의 고등학생 봉사자들과
담임선생님.

1주일이라는 그리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그들은 우리 마을에서
실컷 놀다가 갔다.

마치 내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하얀색 형, 누나, 오빠, 언니

학생 봉사자들



마을 친구들과 함께 **마을의 쓰레기**를 주웠다.
비가 왔지만 전혀 굴하지 않았던 친구들.
너희도... 여기서 살래??



한국어로 이름도 써주고 한국어 노래도 직접 만들어서
마을 친구들에게 가르쳐주었다.

하얀색 형, 누나, 오빠, 언니

학생 봉사자들



너무나 즐거워 했던, 그리고 녹초가 되었던 **게임활동!**
혼자서는 한계가 있던 놀이들을 많은 친구들과 할 수 있었다.
고등학생이라 그런지 상당히 잘 놀더라.



서로의 **음식**을 바꿔서 먹어보는 시간도 가져보았다.
과감하게 **손으로** 음식을 집었던 한국인 친구들
너희들... 여기서 같이 살자니까....

하얀색 형, 누나, 오빠, 언니

학생 봉사자들



돈금 없이 한국인 봉사자들을 담당하게 되었다.
여행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해 본다는 기획을 스스로 하고
이 곳 라오스로 온 친구들이었다.

나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할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고 어려웠다.

그래서... .. 그냥 애쓰지 않았다.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마을 친구들과 함께 놀았다.
필요했던, 원했던 것들을 조금씩 해주며 그저 지냈다.
마을 친구들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으며 민폐도 끼쳐봤다.

그들은 행복해 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 덕분에 1주일 동안 미소가 끊이질 않았다.

그거면 됐다.
우리 모두는 그걸로 됐다.

점을 찍어 주었다.

지난 4개월 동안 나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바꾸지도, 만들지도 않았다.
그저 내 가족들, 친구들 인생에 아주 조그만 점을 찍어 주었다
그들의 인생에 나는 아주 작은 점일 뿐이다.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작은 점 하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찍어준, 나로 인해 찍힌 그 작은 점 하나가
다른 멋진 점을 만나고, 이어지고,
선이 되고, 면이 되어
결국 인생이라는 멋진 그림이 만들어 진다면
그 점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닐 테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그림에는
이미 이 곳 사람들로 인한 멋진 점들이
나의 인생에 그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니까.





05 / 행복한 마을

위양싸마이

김기남

05 / 행복한 마을

위양짜마이



마을센터에서 진행되는Class



평일 6시~7시시 아사와 함께 하는 **영어수업**.
초등학생을 위한 단어위주와 기본문장 만들
기 수업이다.
아사가 번역과 읽기 전반적인 것을 맡아
진행한다.



매일 7~8시 아사와 함께하는 **댄스교실**. 초등
학생들에게 크무와 라오스 전통댄스, k-pop
을 아사가 가르쳐 준다.

Center 참관 수업



앗의 도움으로 영어수업 진행. 앓은 비엔티안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영어를 전공으로 하고 있다. 분위기와 교육수준을 향상 시켰다.



민행단원과 끼양의 원정댄스교실로 다양성을 향상 시켰다.

나케 쌀 농장



첫째 주, Home stay 부모님이 쌀 농장에서 살면서 쌀을 심기 위한 거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둘째 주, 나도 농장에 가서 길을 내고 물고기와 다슬기를 잡고 놀았다.
셋째 주, 쌀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넷째 주, 난 루앙프라방으로 도망갔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농번기의 시작으로 주로 요리를 하셨던 Home stay 부모님이 나케마을로 떠나셨다. 그래서 남은 아들과 딸 들은 매 끼니를 돌아 가면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도 하루에 한끼 요리사를 하기로 했다. 감자 볶음만으로 4번 식사를 때웠고 각종 통조림과 삶은 계란으로 하루하루 고비를 넘겼다.



이건 재미로 kkk

방비엥 city tour

투어

1. ATV
2. 카약킹
3. 튜빙
4. 줌라인
5. 산악 오토바이 투어
6. 산악 트래킹
7. 몽족투어
8. 암벽등반*11월~5월
9. 열기구 체험*11월~5월

투어 외에 찾아갈 곳

1. 탐 푸캄(블루라군)
2. 탐 짱
3. 탐 롬
4. 갱유이 폭포(유이 폭포)
5. 딸라 방비엥(북부 시장)
6. 사쿠라 바(여행객 클럽)
7. 하트비트(로컬 클럽)

라오스에 온지 4개월 차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만을 남겨 두고 있다. 여기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영어 수업, 한국어 수업, 댄스교실, Homestay, 이런 것들이 마을에 크게 도움은 된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조금 더 흥미를 붙이게 하는 정도,,,? 아직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 일 때가 더 많다. 좀 더 적극적이게 다가 가고 더 웃자. 너무 많은 말은 거짓과 과장을 만든다. 하지만 때로는 말이 필요하고 말 할 때는 할 줄 알고 필요한 말은 하자. 정말 중요한 걸 잊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자. 사람이 모여드는 꽃 같은 사람이 되자. 주저 말고 할 때는 확실히.

그냥 살면서 느낀 것들

1. 정보를 공유하자.
2. 작은 일 부터 차근차근 다시 해보자.
3.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자.
4. 원하는 것은 확실히 말하자.



+ / 저희는 다시 마을로 갑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